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DECEMBER
Vol.251

**Good Bye 2023!
Happy New Year!**

삼성 KPMG



올해보다 더욱 멋진 해를 기다리며

Good-Bye 2023!

힘차게 시작했던 2023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떠한 해였을까요?

아쉽고 힘든 일보다는 행복한 순간만 가득 담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건강한 성장

04 2023 Top News

삼성인이 뽑은 2023년 Top News!
최다 표를 기록한 10대 뉴스는?

08 Emerging Trends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미래,
콘텐츠 다양화부터 시작해야

10 Market Reader

글로벌 경기 위축 속 부상하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12 Team Story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이끄는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14 Client+

업계를 선도하는 No.1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

16 Expert's Advice

한국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과
대응 방안은?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20 삼성인러뷰

함께+행하다+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임직원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22 삼성인톡

Good-Bye 2023,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24 KPMG Story

Global Values Week!
우리의 가치를 실천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세렌디피티(Serendipity)

28 心 Care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
비교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30 Samjong News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영향
세미나' 개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삼정인이 뽑은

2023

Top News!

최다 표를 기록한 10대 뉴스는?

삼정인들이 생각하는 2023년 삼정KPMG의 Top News는 무엇일까?
이벤트를 통해 삼정인들이 직접 뽑은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Vision 2025: To Be No.1을 향해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감사·세무자문·재무자문·컨설팅
모든 부문에서 양적·질적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을 이뤄왔다. 건강한
성장을 바탕으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3

FY2023 S.Manager 승진자 및 GEP 우수자 프랑스 & 영국으로 해외연수 진행

FY2023 New S.Manager 140여 명이 2주간 프랑스
파리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는
가족도 함께 동반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GEP(Global Elite Program) 13기 우수자 44명은 2주간
영국 런던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

People First 2023: 인재를 향한 진심과 다짐, 인재 전략 전면 재정비

‘Human Resource’가 아닌 ‘Human Being’으로서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법인은 2023년의 시작과 함께 기존의 인재 전략을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인재를 향한 진심을 담아 ‘People
First 2023’으로 인재 전략을 재정비했다. People First 2023: ‘모두가
체감하는 좋은 변화’를 목표로 업무 방식의 개선,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함께 즐거운 법인 생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온 법인은
앞으로도 인재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People First 2023: 모두가 체감하는 좋은 변화

Innovative Change

의미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변화

Smart Caring

체계적인 성장 지원,
진정성 있는 소통과 즐거운
법인 생활

Best Compensation

공정한 평가와 연계된
차별화된
최고의 보상

업무 효율화



New 지식 플랫폼 'Audit Say' 론칭,
IT Audit Tool 지원 확대 등
업무 효율화 노력

즐거움 생활 지원 확대



우리만의 소통 앱 K-People 론칭,
연 4회 1:1 성장 지원 통합 소통,
스마트 오피스 예약 개선 및 풍부한 간식 제공으로
구성원들의 즐거운 생활 위한 지원 확대

#4

9년 연속 신입 회계사 최다 채용 ... MZ가 가장 선호하는 법인!

MZ가 가장 선호하는 법인으로 9년 연속 신입 회계사를 최다 채용했다. **신입 회계사 385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아울러, **신입 컨설턴트 44명**도 공채 입사했다.



#6

임직원 봉사단 발족! 마음 온도 UP

지난 8월, 함께 더 나은 세상(For Better)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임직원 봉사단'을 발족했다. 복지, 교육, 환경 등 **11개팀**으로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활발히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

자타공인 최우수 M&A 회계자문사!

국내 우수 매체 IB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M&A 회계자문사로 선정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월 15일에 열린 한국경제 주관 '제14회 한국 IB대상'에서 **M&A 회계자문사**를 수상했다. 또한, 지난 2월 16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20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사**로 선정됐다.



#7

KPMG Global Values Week 전개 ... Value 실천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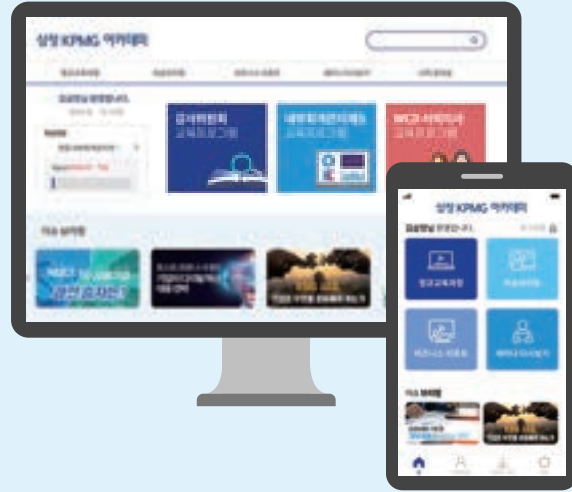
지난 11월 6~10일, 전 세계 KPMG 임직원이 함께 하는 **Global Values Week**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글로벌 연사가 전하는 5가지 Value 이야기, 이영표 해설위원의 Excellence 스토리 강연, 웃고 즐기며 익히는 Value Talks 게임, 밸류 히어로 메시지, 사랑나눔 활동 등 **다양한 Value 활동**으로 **Value의 의미**를 다시금 이해했다.



#8

산업별 세미나 & 삼정KPMG 아카데미 & 보고서 발간 등 인사이트 전파

개정세법 설명회(23.02.16), 해외진출 M&A 세미나(23.03.22), 사이버 부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23.04.05), XBRL 세미나(23.04.28), 제9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23.07.03), ESG 정보공시 세미나(23.07.06), 환경·삼정KPMG 디지털 금융포럼(23.10.18), KES 2023 - ESG 세미나 및 ESG 혁신 챌린지 대회 후원/심사위원 참여(23.10.24-27),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23.11.06), IPO 세미나(23.11.23), 콘텐츠 세미나(23.11.29),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영향 세미나(23.12.04), 대북 비즈니스 위한 NK비즈니스포럼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운영, 유튜브 영상 제작, ERI 보고서 발간 등 전문가의 시각을 담은 산업 이슈 전파 및 방안을 모색했다.



#9

Everyone A Leader, '신뢰를 주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 육성

직무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학습하는 Hybrid Learning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MZ 세대에 몰입을 높이는 참여형 교육과 이벤트로 구성된 입문 교육과 FY2023 승진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을 진행했다. Self Learning 개편, Advisory Professional을 위한 Degreed 도입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셀프 스터디 환경도 제공했다. 이외에도 Audit Professional을 위한 필수 교육 이수 관리 현황 AIM 조회 시스템을 신규 오픈했다.



#10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 한국 최초 개최! ... 방향성 모색 및 협력 강화

2023 ASPAC Partners Conference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200여 명의 ASPAC 파트너 및 Global Leadership이 한자리에 모여 Collective Strategy v3.0으로 KPMG의 향후 방향성 및 전략을 살펴보고, ESG와 AI 등 최신 화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삼정인의 생각! 제가 생각한 올해의 뉴스는요~?



2024년에 열릴 55주년
People First Concert!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축제!



리쿠르팅 Wrap-up 행사
진행으로, 법인 내 많은
리쿠르터들에게 자부심과
동기 부여가 된 것 같아요!

Deal Advisory의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 새로운 Function
Head 임명과 함께 기존 7개 본부를
10개 본부로 Deal Advisory
조직체계를 개편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 우승과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 준우승!

한공회 연수 성적우수자
최다 배출 법인



소소하지만 간식이 다양화되어 매우
만족하고, 내년에 콘서트를 한다고 미리
공지해 주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신나요.

CS 부분의 대대적인 인사 이동 및
조직 개편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법인
성장을 위해 위험 속에서도 큰 변화를
이루어 낸 법인의 도전과 혁신에
감탄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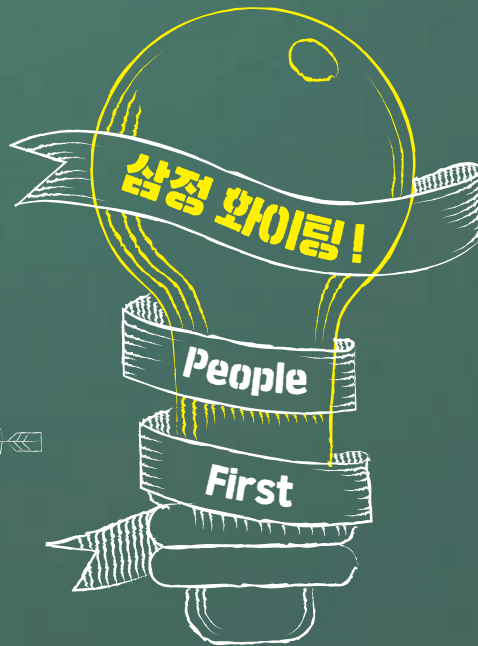
라운지의 다양한 커피 원두와 더욱
다양해진 간식! 또한, 좌석 예약방식도
키오스크가 아닌 앱으로 예약이 되는
등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법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언론에서 4대 회계법인 감사인 중
삼정회계법인을 제일 선호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구성원 중
한 명으로써 뿌듯했습니다.



감사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Audit Say 출범 소식이 감사본부에
있는 회계사로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의 장
K-People 오픈



업계 전반으로 불황인 와중에
직원들의 복지에 가장 밀접하게
달아있는 휴게실 간식이 풍부해져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항상 인재를 No.1으로 생각하는
삼정 KPMG의 경영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학습취약아동에 “문해력 향상
교육 지원”!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 너무 멋졌습니다.



삼정회계법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빛입니다!

삼정 화이팅~~!
내년에는 회계법인 매출 1위 뉴스
가즈아~~~!

OPEN PD 제도 변화



제2회 삼정KPMG
챔피언십 개최, 골프로
하나된 순간!

K-People 론칭으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제로 수행하면서
People First가 된 법인의
모습을 본 것!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이
구성된 소식이 가장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미래, 콘텐츠 다양화부터 시작해야

최근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내 서브컬처(Subculture) 콘텐츠, 즉 다양한 니치 콘텐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서브컬처의 인기 트렌드의 등장 배경과 콘텐츠 밸류체인별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브컬처 부상 배경은?

올 한 해 국내 극장가에서는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애니메이션 장르가 큰 인기를 끌었다.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등의 서브컬처 게임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높은 흥행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흔히 오타쿠 문화로 불리며 일부 경시되기도 했지만, 최근 높은 인기를 얻는 서브컬처 콘텐츠라는 점이다. 넓은 의미의 서브컬처는 소수가 즐기는 독특한 장르 전반을 일컫는다. 이미 대중적인 인기가 어느 정도 보장된 소재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제작·유통되는 주류 콘텐츠가 아닌, 실험적이고 개성 강한 소재와 다양화된 장르의 니치 콘텐츠를 의미한다.

최근 서브컬처 콘텐츠의 부상은 글로벌 음악, 영상, 웹툰·웹소설, 게임 등 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인기 상승 배경에는 기술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웹툰,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자막 기능 덕에 언어에 대한 장벽 또한 낮아지면서, 글로벌

다양한 지역 및 장르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취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기술의 발전은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도 기여했다. ‘YouTube Culture & Trends Report(2022)’에 따르면 전 세계 Z세대 5,722명 중 61%는 본인이 어떤 것·사람의 ‘찐팬’, ‘슈퍼팬’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글로벌 취향 공동체를 이뤄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놀이문화를 만들며, 다른 이용자의 흥미와 유입을 이끌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성 있는 취향을 쫓는 ‘힙스터’ 문화가 긍정되는 사회 트렌드도 최근 서브컬처 부상의 배경으로 보인다. 독립 영화, 인디음악 등 비주류 문화 소비를 선호하는 이들은 젠더, 인종, 지역 다양성을 포용하는 감수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신념, 가치를 반영한 제품 소비에 적극적이다. 이처럼 MZ세대 중심으로 개성과 다양성,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대되며, 사회에서 서브컬처 전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비가 늘고 있다.

확 커진 서브컬처 콘텐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그렇다면 기업들은 최근 서브컬처 콘텐츠 수요 확대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에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다양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로컬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장르 정체성을 반영한 개별 독립 레이블을 다양하게 둔 멀티 레이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 엔터사인 하이브의 경우 국내외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하는 엔터사를 인수하며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 유명 래퍼들이 소속되어 있는 힙합 전문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를 인수하며 장르 다양성 확대에 나섰다. 콘텐츠 기업은 또한 버추얼 유튜버와 같이 부상하는 신기술과 접목해서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장르와 포맷에 대한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고유한 개성을 지닌 작품 포트폴리오, 큐레이션 등을 통해 시장내 입지를 갖추고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칸 영

화제 수상작의 미국 배급사로도 알려진 MUBI는 최초의 SF영화 ‘달세계 여행’(조르주 멜리에스 감독, 1902) 등과 같은 고전 영화 및 독립 영화 중심의 특색 있는 큐레이션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구축한 사례이다. 그 밖에 콘텐츠 기업들은 기술투자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이용자 개인의 정보 등에 대한 AI 학습 기반의 이용자가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을 최적 시점에 제시하는 기술 ‘헬릭스 푸시’를 공개한 바 있다.

고객 서비스 단계에서 기업들은 서브컬처, 니치 장르를 즐기는 팬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커뮤니티 구성에 적극적이다. SM엔

터테인먼트의 팬덤 플랫폼 ‘디어유’, 하이브의 ‘위버스’ 등 국내 K-pop 산업은 팬덤 비즈니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이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Web 3.0 시대가 도래하며 콘텐츠 산업 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팬들이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과 거래를 하며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 나가며, 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브컬처 콘텐츠는 대중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오히려 기존 주류 콘텐츠의 문법과 공식에서 자유로이 벗어나 있어 참신한 문화와 사고의 가능

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롭고 다양한 니치 콘텐츠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고려한 전략을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새로운 시도에 열린 혁신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ICE2본부 안창범 전무
Tel. 02-2112-0312
E-mail. cahn@kr.kpmg.com

경제연구원 류승희 선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seungheeryu@kr.kpmg.com


최근 서브컬처 콘텐츠의 인기 배경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장르·지역 콘텐츠 접근 기회 확대



글로벌 취향 공동체의 연대 및 커뮤니티 형성



MZ세대 중심의 개성을 긍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힙스터 문화’ 확산

콘텐츠 밸류체인별 서브컬처 트렌드 대응 전략

기획·제작 단계

- 로컬 콘텐츠 기획·제작에 대한 투자 확대
- 멀티레이블 운영을 통한 다양한 장르 포트폴리오 구성
- 신기술과 접목되어 부상하는 신규 콘텐츠 포맷에 대한 투자 확대

유통 단계

- 개성 있는 작품 포트폴리오 구축, 큐레이션을 통한 유통 플랫폼 경쟁력 확보
- 기술 투자를 통해 니치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확대

고객 서비스 단계

- 팬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 니치 장르일수록 팬덤 커뮤니티 형성의 동기 및 응집력 강한 경향
- 향후 Web 3.0 기술 발전과 함께 콘텐츠 산업 내 커뮤니티의 중요성 확대 예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경기 위축 속 부상하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PE(Private Equity) 포트폴리오의 대형화와 경쟁 심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PE 투자 포트폴리오의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이에 펀드 만기를 앞둔 PEF 내 우량 자산의 회수 시점을 이연시켜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글로벌 PE 시장에서 GP(General Partner, 운용사) 주도형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를 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본시장 내 투자회수 위축, 컨티뉴에이션 펀드 부상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만기 시 기존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 내 포트폴리오 가치가 목표가치 등에 하회하는 경우 이를 기존 펀드 대신 새로운 신규 펀드로 이전하여 동일한 GP가 이를 계속적으로 운용하는 GP 주도형 거래 전략이다.

과거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펀드 구조조정(Fund Recapitalization)’으로 불리며, 주로 운용역량이 낮은 GP 중심으로 매각가가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보다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실현이 어려운 부실화된 사모펀드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회수시장 위축 등 투자환경 변화를 고려해 GP가 최적 투자 수익 시점을 포착하고, 기존·신규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사원)를 대

상으로 다양한 회수 및 투자 대안을 제공하는 이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대한 LP들의 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GP와 LP 모두에게 유용할 컨티뉴에이션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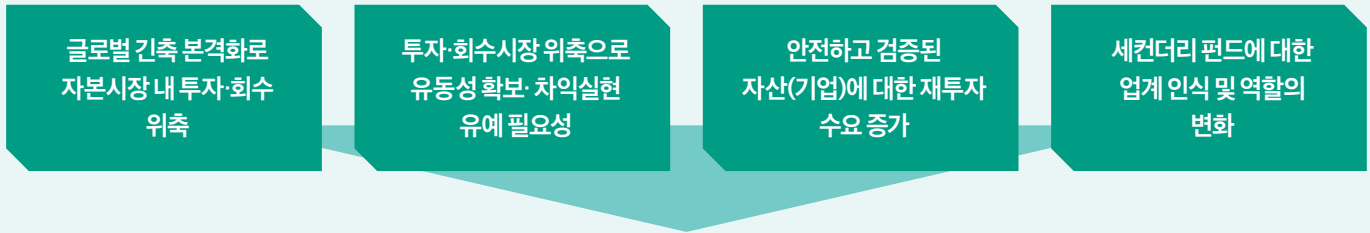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GP와 LP 모두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GP 측면에서 우량 투자자산을 낮은 기업가치로 매각하는 대신 보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미 PE는 타깃 기업의 산업과 성장성 등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규 LP로 포트폴리오 기업과 연관된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 등을 모집하여 신규 자본 확보와 추가적 성장 동력 마련에도 유리하다.

기존 LP투자자는 사전 설정된 가격으로 투자를 현금화하거나 보유 지분을 유지하며 신규 펀드로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선택지가 확대된다. 아울러 GP와 마찬가지로 우량 자산이나 기업의 미래 가치 실현에 필요한 투자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펀드 관리 보수체계나 수익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새로운 펀드 운영 조건을 GP와 협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미 검증되고 안전한 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신규 LP투자자에게도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컨티뉴에이션 펀드 거래

1차 펀드가 청산되기 전 회수(Exit)를 시도하는 LP로부터 기존 계약을 매입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부상 배경



우량자산 장기 보유를 통한 차익실현 유예 수단으로 주목 받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GP

- ☑ 투자자산 지속 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 기회 확보
- ☑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추가적 성장 지속 지원
- ☑ 후속 투자를 위한 신규자본 및 추가 유동성 확보

LP

- ☑ 기존 LP투자자는 투자회수를 통한 즉각적 현금화 또는 포트폴리오 재구성 가능
- ☑ 신규 LP투자자의 경우, 우량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
- ☑ 펀드 관리 보수체계 등 펀드와 관련된 조건을 GP와 새롭게 협상 가능

세컨더리 시장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의 투자 지분 회수 방안으로써 LP투자자 간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사 네트워크와 운영역량을 지닌 대형운용사와 견실한 기업을 포함한 사모펀드 중심으로 GP 주도형 거래가 활용되는 모습이다. GP 주도형 거래는 2018년 2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세컨더리 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32%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거래 비중이 50%까지 상승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회수전략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랙스톤(Blackstone Inc.)은 2020년 10월 2016년 결성된 Blackstone Real Estate Partners VIII(BREP VIII) 펀드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바이오메드 리얼티(BioMed Realty) 보유지분 유지를 위

해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결성했다. 이후 2020년 11월 블랙스톤은 146억 달러에 바이오메드 리얼티의 매각을 완료했으며, 해당 거래로 BREP VIII 투자자들은 약 65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제

미국에서는 향후 컨티뉴에이션 펀드의 활용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기관유한책임사원협회(Institutional Limited Partners Association, ILPA) 등을 중심으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내재한 이해 상충, 정보 비대칭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GP와 LP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회수를 위한 건전한 촉이자 차익실현 기회를 이연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eal Advisory7본부
손호승 부대표
Tel. 02-2112-0717
E-mail. hson@kr.kpmg.com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Tel. 02-2112-7769
E-mail. yeonkyungchoi@kr.kpmg.com



가상자산 사업의 신뢰성 강화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이끄는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의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를 벗어나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및 금융감독원 감독지침 발표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상자산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위한 참여자 자율적 노력 필요해

2023년 하반기 해외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상승, 국내에서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심사 체계 개편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기대감 상승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질 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22년 말 대비 23년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4조 원에서 28.4조 원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2.9조 원이며, 거래 이용자 수는 606만 명이다.



반면, 가상자산 발행자의 유통량 공시, 발행자 및 거래소의 해킹 사고 등 가상자산 관리 부실 관련 뉴스 역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대감에 따른 가상자산 시세의 상승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단계적으로 제정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률,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회계 이슈 감독지침과 주식공시 사례, 한국회계기준원의 가상자산 공시 기준 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등 정책 당국의 진일보된 정책적 노력은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인 노력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의 시장 참여자인 발행자, 거래소, 투자자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가상자산을 발행, 거래,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거래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참여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가상자산 전문가 집단

삼정KPMG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은 팀 리더 박성배 부대표와 최연택 상무를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 체계, 회계 및 통제, 세무,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팀 구성원들은 수년간 가상자산 발행자, 거래소, 투자자 등 많은 기업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주요 서비스

가상자산 발행 및 운영 체계 구축

- 가상자산 발행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의 진단과 구축

- 회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사의 현황에 맞는 가상자산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구축
- 가상자산 지갑 관리 및 사이버보안 위험 방지 체계 수립

가상자산 회계 정책 수립 및 공시체계 구축

- 회사의 사업 목적 및 백서 등을 고려한 수행 의무의 식별
- 선택 가능한 회계 정책의 검토 및 수립
- 유통량과 관리 계획 및 보유 위험에 대한 공시 체계 구축 자문

세무 리스크 검토 및 대응 방안 수립 지원

- 국제 거래에 대한 정상가액 검토, 사업 관련 세무 진단 등 사업 전후 세무 자문

들과 함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고민했으며,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관계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을 펼쳐왔다.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은 다양한 업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기반한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체계, 발행 후 자산관리와 공시, 내부통제 및 회계,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은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을 소개한다면?



박성배 부대표 팀 리더

sungbaepark
@kr.kpmg.com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KPMG의 One-Team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항을 내 일처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연택 상무 법인대표전문가

yeontaekchoi
@kr.kpmg.com

국내 최초로 수행한 가상자산 발행 기업에 대한 감사, 누구보다 다양한 자문 업무 경험, 이를 토대로 형성된 학계, 단체 등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신문철 상무 정보통신사업본부

moonchulshin
@kr.kpmg.com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회계와 내부통제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Ad-Tech x Performance x Creative x Media



업계를 선도하는 No.1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

인크로스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모바일 광고를 시작한 이후 다년간의 풍부한 마케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광고 사업 및 AI 기반 큐레이션 커머스 'T deal'과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업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를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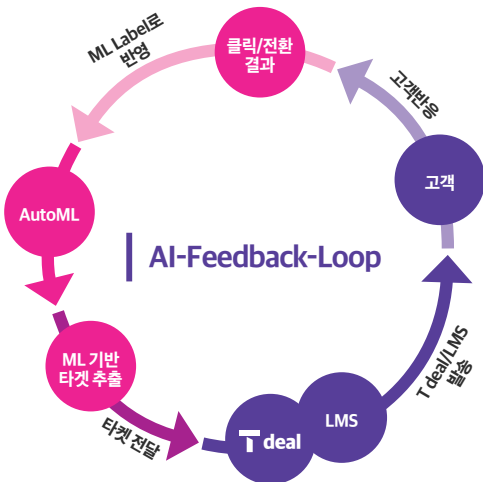
합 집행하고자 하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회사 마인드노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검색광고 부문은 사업 초기임에도 취급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실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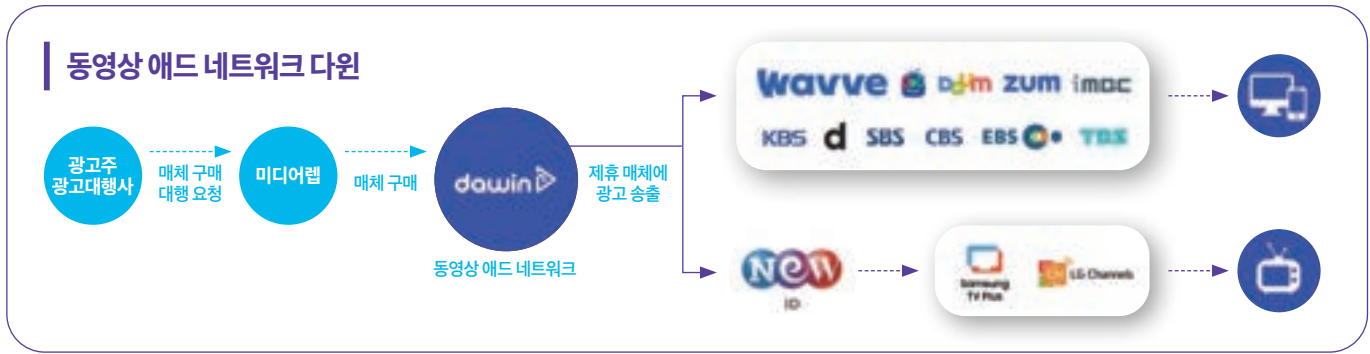
incross

미디어렙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진화하며 성장!

인크로스는 SK스퀘어의 관계사로, 미디어렙, 퍼포먼스 광고 및 검색광고를 아우르는 디지털 광고 사업과 SK텔레콤의 AI 큐레이션 커머스 티딜(T deal)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판매 대행 및 미디어 플래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렙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나, 퍼포먼스 마케팅 및 검색광고 시장에 진출하며 광고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모든 유형의 광고를 통

인크로스는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 국내 최초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다윈'을 론칭하고, 2020년 SK텔레콤과 함께 티딜 서비스를 개발하며 문자 기반의 AI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새로운 사업모형을 발굴해 냈다. 또한 내부 기술연구소의 솔루션 개발 역량과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성장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두루 갖춘 인크로스는 광고업계 상장사 중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2019년 SK그룹에 합류한 이후 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시로 딱 맞는 상품 추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티딜

인크로스가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AI 큐레이션 커머스 티딜은 SK텔레콤의 AI 기술력과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최저가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수많은 상품이 입점돼 있는 이커머스 특성상 이용자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 구매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티딜은 SKT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문자 메시지와 티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와 취향에 맞게 큐레이션된 상품을 확인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 기반의 AI 상품 추천을 더욱 고도화했고 그 결과 기존 대비 문자 클릭률이 최대 16%까지 증가했다. 판매자는 고객에게 발송되는 상품 추천 문자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며 효과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

8월 말 기준 티딜 입점사는 2,200개를 돌파했으며, 특히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기업은 인크로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갖춘 ‘스타 업체’로 거듭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전, 패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 혜택 극

대화에도 힘쓰고 있다. 고객과 판매자 모두에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티딜은 올해 9월까지 누적 거래액 1,600억 원을 돌파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인크로스는 앞으로도 판매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SK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포인트를 확대하며 커머스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밸류체인 확장하는 인크로스

인크로스는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광고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차별화된 마케팅 경험을 제공한다. 최근 OTT 열풍으로 콘텐츠 소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CTV(Connected TV) 광고시장도 본격적인 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TV는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TV, 게임 콘솔, IPTV 셋톱박스 등 여러 스마트 기기가 연결돼

VOD, IPTV, 스트리밍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TV를 의미한다. 인크로스는 아시아 최대 FAST 사업자인 뉴 아이디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CTV 광고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9월 출시한 ‘다윈 CTV’ 신규 상품은 모바일, PC부터 TV까지 크로스 디바이스(Cross-device)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국내 매체는 물론 로쿠(Roku), 아마존 Fire TV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약 2억 가구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제휴 매체 커버리지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정교한 타기팅과 광고효과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옥외광고(DOOH)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며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크로스는 최근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 AI 그룹을 신설하기도 했다. AI 그룹은 인크로스 기술연구소와 협력해 AI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내부 광고스터디 진행



티딜(T deal) 어플리케이션 및 발송 메시지





한국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과 대응 방안은?

한국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여전히 자금통제 미비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언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미흡도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IT 통제 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5'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내부통제의 중요 취약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Q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추이는 어떠한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8년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별도기준 감사 대상 기업은,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상장기업의 추가로, 전년 대비 239.3% 증가한 총 1,510개 사입니다. 감사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비적정 의견 기업은 38개 사로 전년 4개 사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2021년 0.9%에서 2022년 2.5%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시,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자금통제 미비는 미국(7건, 1.1%)에 비해 한국(30건, 14.4%)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횡령사고는 조직의 낮은 윤리의식과 개인의 동기 외에도, 업무 분장 미비와 부실한 증빙 대서, 형식적인 상급자 검토통제와 같은 자금통제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식별된 내부통제 취약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김유경 전무

Tel. 02-2112-0639

E-mail. youkyoung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1월 9일 발간한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5'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통제활동의 준수를 촉진하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성과평가모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한미 양국 공통적으로 '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내부통제 영역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 수 있어 IT 통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IT 통제의 개선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나 변경 전략과 연계될 수 있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IT 고도화 전략수립과 실행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 과정에서는 IT 시스템 개선의 목표가 성과 개선과 프로세스 효율화에 치우쳐,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성과 관리와 리스크 관리 간의 균형 잡힌 목표를 견지하도록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Q 주목할 만한 내부통제 취약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정보기술 일반통제(ITGC) 미흡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총 3개 사가 이에 해당하여 비중은 낮으나, 미국에서는 매년 20% 안팎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 눈여겨보아야 할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업무 분장 미흡'이 지적된 기업은 'IT 통제 미흡'도 함께 지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업무 분장 미흡'을 지적받은 101개 사 중 약 70%가 'IT 통제' 또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IT 의존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서, IT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T 통제가 미흡하면 회사가 산출하는 재무 정보 전반의 신뢰성이 낮아

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의견 차이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기업(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비율은 80%를 상회하여, 미국의 의견 불일치 비율이 0%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기업 내 평가조직의 적격성(객관성 및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초래하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에서 의견 불일치 기업이 없는 주된 배경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외부감사인과 회사가 적시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적시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Y2022 韓美 중요한 취약점_내부통제 영역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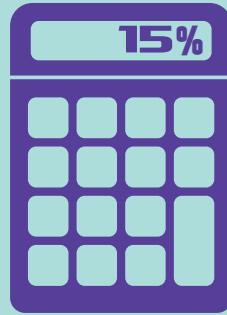
한국	미국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10.5%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 5.9%
자금 통제 미비 14.4%	업무 분장 미흡 16.1%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19.1%	부적절한 공시 통제 16.3%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20.1%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22.0%
범위 제한 25.4%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22.3%

Source: 삼정KPMG ACI Analysis, Audit analytics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필라2(Pillar 2)라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이다. 아울러, 최근에 기업들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롭게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위한 선임사외이사제도

선임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先任)된 사외이사를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 가교 구실을 하고, 사외이사 중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아울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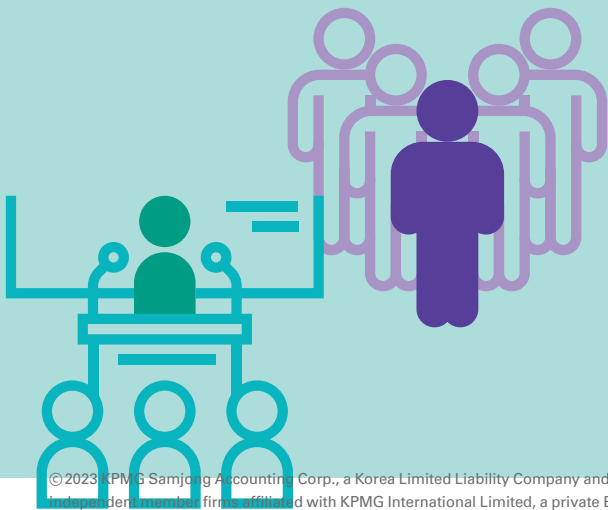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18년 3월부터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삼성이 삼성SDS와 삼성SDI에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에 15%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되었고, 이행체계에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에요.

한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를 통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200여 개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Happy workplace



원문과 인터뷰

삼정인러뷰

함께+행하다+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임직원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20

삼정인톡

Good-Bye 2023,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22

KPMG Story

Global Values Week!
우리의 가치를 실천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세렌디피티(Serendipity)

26

心 Care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
비교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28

Samjong News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영향
세미나’ 개최 外

30

함께+행하다+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임직원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삼정KPMG는 함께 더 나은 세상(For Better)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임직원 봉사단'을 창설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봉사단을 만들어,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직원 봉사단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봉사 후기도 들어본다.

삼정KPMG 임직원 봉사단이란?

2023년 8월, '신뢰를 부여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KPMG의 Purpose에 맞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임직원 봉사단을 창설했다. 법인에서는 삼정사랑나눔회를 주축으로 월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및 시간의 제약으로 참여를 희망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봉사단을 만들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복지, 교육, 환경 등 각 관심사를 가진 임직원들로 봉사단이 꾸려졌으며, 총 11개의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Contact: PPC - CSR 담당 김민지 대리 mkim202@kr.kpmg.com



"제빵 봉사로 의미 있는 시간을!"

입사 동기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KPMG의 For Better를 실천하기 위해 봉사단을 꾸리게 됐어요. CS본부 컨설턴트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은 제빵 봉사단, '따끈따끈베이Con.'이에요. 손수 만든 빵과 쿠키를 수혜처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봉사단 10여 명은 2시간 내내 실 틈 없이 정성스레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지만, 어느새 포장까지 완료된 따끈따끈한 빵을 보면 작은 실천과 배움으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보람된 경험을 다른 삼정인분들도 함께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봉사팀



OT (Outstanding Team)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해킹 등 진로 멘토링
김수득 Manager(Digital) 외 5명

행복한 동행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멘토링
김정환 전무 (DA2) 외 15명

환경 봉사팀



환경 봉사단

공원, 산 등 지역내 쓰레기 줍기 활동
장선미 상무 (CS 임원실) 외 4명

오아시스

관악구 일대 환경 정화 및 빵과 쿠키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길준 Associate (B&F2) 외 4명

Go Green

노을공원, 서울 숲 등 나무 심기 및 쓰레기 줍기 활동
한윤성 상무 (DA7) 외 11명

떡잎방범대

유기견 돌봄 및 견사관리 봉사
양서원 Consultant (Digital) 외 4명

명!사단

유기견 견사청소 및 목욕, 산책 지원
김연하 Senior(ICE1) 외 4명

1004GH

유기견 견사 청소 및 목욕, 산책, 물품 지원
국세윤 Associate (IGH) 외 4명



임직원 봉사단

복지 봉사팀



따끈따끈베이Con

명절, 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 맞춰 빵과 쿠키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

이채현 Consultant (MC2) 외 11명

아름다운 봉사단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 방문해 아이 돌봄, 청소 등 노력 봉사 진행

서정혁 상무 (B&F) 외 7명

Outlook

복지/ 환경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전개, 취약아동 동화책 만들기, 어르신 나들이 활동 보조 등

박재욱 S.Senior (IM1) 외 9명



윤수영 S.Senior (ICE1)

"상처받은 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본가에 17살의 노견을 키우고 있어 평소에 유기견 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참여하진 못했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임직원 봉사단 모집 소식을 듣고, '이거다!' 싶었죠. 우리 봉사단 이름은 멍사단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해 견사 청소는 물론 손질이 필요한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유기견들이라, 상처를 받아 어둡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밝고 사람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느꼈어요. 그만큼 봉사단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단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 멍!사단과 함께해요!



김수득 Manager (Digital)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봉사단 Outstanding Team(OT)은 수도권 지역 내외의 청소년들에게 해킹&보안 분야의 진로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 온라인 커뮤니티(해커스쿨)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해킹과 보안 분야 입문 친구들을 만나 멘토링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생들은 해킹, 보안 진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T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직접 도와주자는 의견이 모여져 봉사단을 시작하게 됐어요. 서로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책임감을 갖고 봉사에 임하게 되었고, 이번 계기로 팀워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껴요. 이처럼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도중에 봉사단을 통해서 보람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삼정인분들도 봉사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Good-Bye 2023,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힘차게 시작한 2023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삼정인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연말 특집으로 '삼정인톡'에서는 삼정인들의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삼정인이 전해온 2023년 소중한 추억을 함께 살펴보자.

반기업무 끝나고 팀원들과 야구 직관한 날 이재능 상무 (IM2)

야구장에서 후배들의 활기찬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하.



11월 5일 JTBC 마라톤 풀코스 완주! 정부광 Associate (ICE1)

저는 올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 마라톤 완주를 최고의 순간으로 선정하고 싶어요. 정신없던 첫 시즌을 보내며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했고, 시즌 전에 꾸준한 러닝을 통해 11월 JTBC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계획했죠. 계획은 원대했으나, 잦은 여행과 여러 이벤트로 100km의 연습량도 채우지 못하고 대회장에 도착했고 결국 4시간 5분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대회 전까지 훈련 계획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했고, 대회 일주일 전 장염에 걸려 3일 동안 하루 1kg를 겨우 먹었고, 대회 당일에는 거짓말처럼 비가 쏟아졌고, 30km 이후 지점부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완주했습니다! 이번 완주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맡은 업무도 끝까지 해내려 합니다. 올해 이룬 크고 작은 성취감으로, 내년에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첫 시즌의 감사보고서를 무사히 발행한 순간! 정승령 Associate (IGH)

올해 처음 시즌을 보내고 2년 차가 된 저에게, 감사보고서를 무사히 발행한 순간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시즌이라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밤도 새면서 힘들었지만 다투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보니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물론 아직 1년 차라 기여도는 낮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리프레시로 일본을 다녀왔는데 날씨 좋은 봄에 시즌까지 무사히 마치고 다녀와서 여유롭고 한가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무사히 퇴원한 날 정상모 S.Manager (MC4)

2023년 1월 14일은 31주에 태어난 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무사히 퇴원한 날입니다. 7년의 기다림과 아픔 끝에 찾아온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는 위기도 있었지만 건강히 저희 곁으로 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새남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결혼 안상현 Manager (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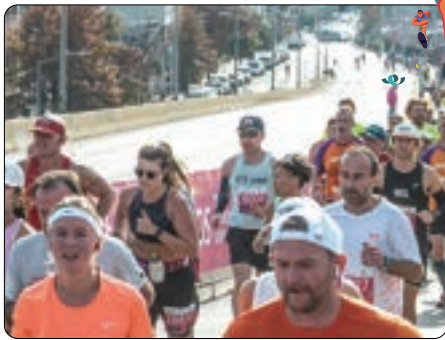
저는 올해 소중한 인연을 찾아 평생을 함께하기를 약속했어요. 더불어 인연을 만나게 된 곳이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라는 특별함이 있어, 올해의 가장 기억되는 순간으로 선정했어요. 회사 내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이 특별한 순간은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M3 본부 동기들과 함께 첫 MT 모임을 가진 순간!

이민형 Associate (IM3)

힘든 수험생활 기간을 마치고, 꿈꿔왔던 삼성KPMG에 입사해 IM3본부의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기입사자로 일을 했던 초반에, 동기들이 적어 혼자서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인지 동기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어려울 때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번 첫 동기 MT를 계기로 삼성KPMG에서 맺어준 인연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새기게 된 듯하여, 올해 가장 기억되는 순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KPMG를 가슴에 새기고, 뉴욕 마라톤 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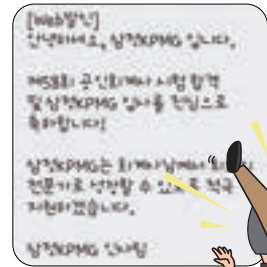
김재홍 Manager (MC3)

2023년 뉴욕 마라톤을 완주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삼성KPMG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삼성KPMG 로고를 가슴에 달고 뉴욕 마라톤 42.195KM를 달렸습니다. 회사 이름을 유니폼에 달고 뛰니 회사 대표 선수가 된 것 같아 부담도 있었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저에게 KPMG를 외쳐 주었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삼성KPMG라는 공동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성KPMG 입사를 확정받은 순간!

김혜성 Associate (B&F3)

수험기간은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에서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터널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느낀 해방감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 결승전 완투승

이형용 Associate (IGH)

작년에 Part-Time으로 일할 때부터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 목표는 삼성KPMG에 입사해서 결승전 선발투수로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입이 결승전에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지만, 올해 9월에 입사한 순간부터 잘 때나 씻을 때나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 결승에서 우승하는 것만을 꿈꾸고 상상했어요. 이 오랜 바람이 이뤄진 것인지 저는 대회 결승전에서 완투를 하여 팀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사진은 2018년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김광현 선수가 마지막 타자 삼진을 잡고 세리머니 하는 모습을 오마주하여, 상대 팀 마지막 타자를 삼진을 잡고 세리머니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동기들과 입사1년을 축하하며!

정한규 Associate (B&F3)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연 입사 1년을 축하하며 동기들과 함께한 MT입니다. 사당역 인근 파티룸에서 동기들과 서로의 성과를 기리며 맞춤형 단체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리의 웃음과 행복한 표정은 올해 최고의 순간을 말해주는 듯해요. 이 시간을 통해 그간의 업무의 압박과 도전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들과 진심을 나누고,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운 귀중한 시간이었네요.





Global Values Week!

우리의 가치를 실천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KPMG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핵심 가치인 Values를 통해 Professional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더욱 강조하며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다. KPMG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Values(핵심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이해하고 재확립하기 위해 11월 6~10일을 'Global Values Week'로 선정했다. 전 세계 멤버 펌들은 이 행사에 동참했고, 삼정KPMG 역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에서 진행한 Values Week의 다채로운 활동을 살펴본다.

삼정 히어로가 전하는 Value!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 5가지 Value 챔피언으로 선정된 삼정KPMG 구성원들이 전하는 Value의 의미를 영상으로 살펴봤다. 아울러, 이들이 일상에서 Value를 실천하는 스토리도 함께 들어봤다.



삼정 Integrity 히어로



삼정 Courage 히어로



삼정 Excellence 히어로



삼정 Together 히어로



삼정 For Better 히어로



삼정포럼, 이영표 해설위원의 Excellence 스토리로 진행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축구 선수 이영표 해설위원을 연사로 초대해, 삼정포럼을 진행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축구 선수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이영표 해설위원의 그간의 축구 인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포럼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각과 자극을 받았다", "앞으로의 커리어를 잘 쌓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운 시간",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스스로 재능의 벽을 깨는 날이 올 것이기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웃고 즐기며 Value 익히는 Values Talk 게임

11월 9일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인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한 KPMG만의 특별한 보드게임, Values Talks 게임을 진행했다.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 모두 2시간의 Values Talks 게임 참여를 통해 밸류를 즐겁게 익힐 수 있었다. 참가자는 “KPMG 부루마블인 Value Talks 게임은 법인의 핵심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여러 성공사례들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재미까지 잡다니! 너무 인상적이었다”,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하우가 담긴 교육 방법인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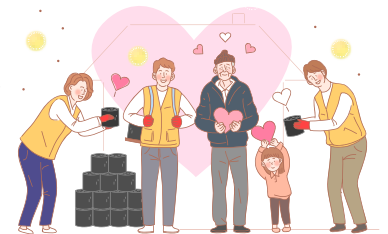


Value로 추억 남겨요! 포토부스 이벤트

Values Week 기간에는 각 Value의 프레임으로 동료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부스 공간을 마련했다. 휴게 라운지에 설치된 포토부스를 통해 구성원들은 Value의 의미도 되새기고, 추억도 남겼다. 포토부스를 이용한 상징인들은 “포토부스는 5 Value로 진행되어 밸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다”, “포토부스에서 팀원들과 추억도 남기고 정말 즐거웠다”고 전했다.

사랑나눔으로 For Better 가치 실현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For Better를 실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팔 손난로 제작을 비롯하여, 희망의 연탄 나눔과 사랑의 빵 나눔 등의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가한 상징인은 “CSR 활동을 통해 우리 법인의 나눔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또 아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팔 손난로 제작 활동에 참여한 상징인은 “영성한 바느질 실력이지만, 손난로를 사용하시면서 추운 겨울 어르신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은 없다 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

세렌디피티 (Serendipity)

한국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운(運)이 좋았다고 말한다. <미나리>로 오스카 수상식에 선 배우 윤여정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겸손한 정답이긴 하지만 뭔가 2프로 부족한 표현이다. 이럴 때 세계적 고수들은 하나같이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혀 예기치도 못한 행운 내지 뜻밖의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렌디피티의 법칙 (Serendipity's Law)

원래 이 용어는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폴(Horace Walpole)이 1754년에 쓴 『The

Three Princes of Serendip』에서 유래했다. 이는 세렌디프(스리랑카의 옛 이름)라는 왕국의 세 왕자가 섬을 떠나 험한 세상을 겪는 스토리다. 여기서 왕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전설의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연의 연속 속에서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기업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세렌디피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창업자들도 공개석상에서 그들의 성공을 뜻밖의 행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고의 세렌디피티는 역시 운명적 사랑과

의 만남일 것이다. 2001년 개봉한 피터 체 슬롭 감독의 <세렌디피티>가 바로 그런 감 격을 그린 영화다.

확장된 세렌디피티

그 후 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돼 온 세렌디피티는 혁신, IT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특히 과학연구 분야에서의 역사적인 진전은 놀랍게도 실수나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때로는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기도 한다. 플레밍의 페니실린과 3M의 포스트잇 발명 그리고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 것이나 모래 위에 불을 피우다 유리를 개발한 것 등도 좋은 사례다.

19세기 독일의 유기화학자 프리드리히 케쿨레(F.A. Kekulé)의 사례는 매우 특이하다. 어느 날 연구에 지친 그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몇 겹의 배열구조를 가진 분자들이 나타났다. 깨어난 후 꿈에 본 모습을 종이에 그려 봤더니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구조였다고 한다.

우연한 행운은 없다

한편 동양학 교수에 따르면, 실제 인생에



서 대가 없이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물뿐이라고 한다. 저명한 세균학자 루이스 파스퇴르는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고 했다. 운이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된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세렌디피티란 ‘갇은 노력 끝에 찾아온 우연한 행운’이라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농구 용어 중에 ‘버저 비터(Buzzer Beater)’라는 게 있다. 이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성공된 골을 가리킨다. 룰에 따르면 종료 버저가 울리는 순간 볼이 슛하는 선수의 손을 떠나 있어야 유효한 슛으로 인정되는 기적의 역전 골이다. 이 버

저 비터의 귀재가 바로 NBA 스타 마이클 조던이나 매직 존슨이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산물이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일견 완벽한 우연으로 보이는 일도 사실은 미지의 강력한 긍정과 노력의 힘에서 잉태된 것이리라. 그러나 이를 두고 우연한 행운으로만 치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노력과 긍정 파워의 위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하수다.

이번 연말에 멋진 기회가 온다면 이런 말은 아낄 이유가 없다.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세렌디피티입니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볼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건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 비교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설 새 없이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참고로 할 만한 생각의 전환들을 소개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모두들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주며 차분해지시는 분들도, 혹은 업무 준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상담과 치료를 진행하면서 특히 현재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직장인들을 상담하다 보니 많은 상담 주제들이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과의 혹독한 비교

물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성취가 좋았던 분들일수록 자신의 과거 가장 좋았던 결과, 혹은 최대한 잠을 줄여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간들,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을 고정점으로 설정한 후 현재와 비교하곤 합니다.

동기 부여와 관련한 저명한 심리학자인 캐롤 드웍의 이론 중,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결과 또한 고정적’이라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능력과 관련한 인정을 많이 받아왔을 수록 고정 마인드 셋이 견고해집니다. 나의 능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과거의 최대 성취에 비교점이 머무르게 되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피하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주로 모범생, 우등생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더 많이 관찰된다고 하니, 어찌 보면 ‘모범’이 낳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겠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능력은 변하는 것이고 어느 시기에든 성

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자신의 빛났던 과거가 비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장할 미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대기만성형 인간, Late bloomer라는 말은 성장 마인드셋을 토대로 성장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요?

필수불가결한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그러나 대부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변화, 소유, 기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나의 좌절감’의 소재가 되는 것을 상담실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러합니다.

사람은 왜 비교를 할까요?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은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하기 위해 사회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만, 요즘의 시대는 다소 극단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일상 생활과 사회적 위치를 현미경으로 확대하듯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엔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운이 역세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담실에 방문하셨던 한 조직의 임원께서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신경 쓰는 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이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으니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

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SNS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른 이들이 순간 순간 뿜어내는 빛과 기쁨에만 자꾸 눈길을 주다 보면 어느 새 나는 쪼그라들어 나의 부족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 서서 보면 다른 집의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얼마나 완벽해 보이나요? 그럴 때는 다른 집은 그만 들여다보고 나의 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연말,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온전히 혼자이든, 소중한 사람과 함께이든 타인과 비교 불가한 ‘나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꼭 사진으로 남길 자랑거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삼정인들의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영향 세미나’ 개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이해와 기업 대응 방안 제시



삼정KPMG가 12월 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국내 기업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영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43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상세 규정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15% 미달 시 연결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추가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250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이해와 세계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을 포함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백천욱 상무가 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와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전했다. 이어, 한대근 상무가 K-IFRS 기준서 개정 내용 및 실무 고려 사항을 안내했고, 민우기 상무는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짚어봤다.

강성원 상무와 강유정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대응 방안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금융 고객사 영향 등을 포함한 주요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용준 상무가 디지털세 필라의 진행 경과와 어마운트 B(Amount B)를 설명하고, 삼정KPMG가 자체 개발한 관련 툴(Tool)들을 소개했다.

한편, 삼정KPMG는 업계 최초로 필라2 도입을 대비해 정확한 필라2 추가세액 계산 및 여러 시나리오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BEPS 2.0 모델링툴(Modeling Tool)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회계보고 및 세무신고 절차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필라2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KBAT(KPMG BEPS 2.0 Automation Technology)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정KPMG 필라2 대응팀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자문부문 내 국제조세 전문가들을 선발해 필라2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새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적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를 논의해 왔다. 또한, 지난 7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강성원 상무를 영입하는 등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 규모와 역량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정KPMG 오상범 부대표는 “회계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해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2023 사업연도 기말 재무제표 공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을 주식에 공시해야 하며, 2024



년 1분기부터는 실제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분석 및 추가세액 계산에 상당한 수준의 자료가 요구되는 만큼 대상 기업들은 빠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예비 기업 대상으로 '제8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11월 23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 정여진 과장이 연사로 나서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전했고, 삼정KPMG 설하영 상무와 김세환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하는 주요 회계 이슈'와 '상장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NH증권 노경호 이사가 '실무사례로 보는 IPO'를 주제로 발표했다.



'가상자산' 주제로 '콘텐츠 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10회 콘텐츠(게임, 미디어&플랫폼)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짚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컨설팅부문 이지현 상무가 가상자산 발행 시 고려사항을 포함한 비즈니스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전했다. 삼정KPMG 감사부문 강승미 상무와 크로스앵글(CrossAngle) 이현우 대표는 각각 가상자산의 회계이슈와 가상자산 회계 처리 관련 온체인데이터 활용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김병국 상무가 발표자로 나서 가상자산 관련 세무 이슈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감사부문 노원 전무가 ESG 동향을 살펴보고, 콘텐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삼정KPMG가 후원하는 WCD Korea, 창립 7주년 포럼 열어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CD Korea)가 지난 11월 15일 창립 7주년을 맞아 ‘ESG시대, 이사회에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공적연금의 운용사 APG (All Pension Group)의 아시아지역책임투자 총괄인 박유경 전무가 주제 발표에 나서 APG의 지속가능한 투자 원칙과 이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최운열 전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박진희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세계여성이사협회는 ‘기업 이사회 여성 이사 확대 및 육성’을 목표로 창립된 비영리 글로벌 회원 단체이며, 한국 지부는 2016년 9월 전 세계 74번째 지부로 창립됐다. 삼정KPMG는 WCD의 Global Lead Sponsor로서, WCD Korea의 발전을 위해 매년 후원을 하는 등 여성 리더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세무 및 경영자문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지난 11월 16일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일본계 기업 대상 ‘회계·세무 및 경영자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Audit, Tax, Advisory, Consulting 부문을 아울러,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회계와 세무 관련 사항, M&A 동향 및 IT기술을 활용한 재무업무효율화 방안 등을 다뤘다. 참석 대상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의 회계, 세무 담당자 및 경영진으로, 56개사 92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삼정KPMG 정창길 전무와 현윤호 상무는 ‘감사와 회계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일본계 기업에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상무 상무와 김정은 상무가 각각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주요 이슈 사항’과 ‘한국의 이전가액세제’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백천욱 상무는 ‘캐시 그랜트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본계 기업 동향’을 전했다. 심재길 상무는 ‘일본계 기업의 한국 M&A 동향 및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고, 양현석 전무와 정승환 이사가 IT기술을 활용한 재무업무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끝으로 세미나에서는 참석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내용과 관련해 현재 회사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4회 정기포럼’ 개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11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을 조찬 세미나로 개최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돕고자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포럼은 설립 이후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정기포럼은 2024년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 시기를 앞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봤

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강연은 삼정KPMG 지동현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산업 전문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통상 이슈 등 ‘AMCHAM 세미나’에서 인사이트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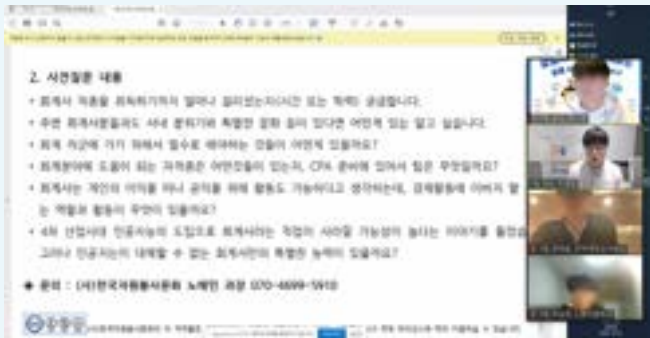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1월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미국 경제·정책 전망 및 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삼정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관련 이슈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전략 및 무역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삼정KPMG 박성원 전무는 ‘성공적인 M&A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삼정KPMG 강성원 상무가 ‘한국 다국적 기업의 미국 투자 세무 고려사항’을 주제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상임감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 주한미국대사관 앤드류 게이틀리(Andrew Gately) 상무 공사와 미국 교역투자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랑나눔]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꿈을 드림(Dream) 프로젝트’ 진행



삼성KPMG가 지난 12월 1일 (사)한국자원봉사문화와 협력해 도서 산간지역의 중고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을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대면 멘토링의 연장선이며, 전문직군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도서산간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삼성KPMG 소속 회계사 및 세무사 6명과 컨설턴트 7명이 참가해, 회계사와 컨설턴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법인을 소개하고, 진로에 대해 진솔한 조언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삼성인들은 “구체적으로 설정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며, KPMG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짧지만 청소년들에게 학교나 학원 외에 무언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시간인 듯하여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김장 나눔 봉사’ 진행

삼성KPMG가 지난 12월 9일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400세대를 대상으로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삼성KPMG 임직원 및 가족 50명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남부봉사관에 집결해 손수 김장 김치를 담그고 가정마다 전달하기 위해 포장했다.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는 동작구와 관악구 일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KPMG는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 등에 참여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임직원이 직접 참가하는 봉사가 중단된 이후 올해 처음 재개됐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